

시집

94년 신입생 맞이를 위하여

“
우 리 는
비 상 을
꿈 꾴 다
”

표현과 창조의 공간 총며학생회에서
1500 새내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자친구

최명자

하! 오랜만이야 반가운 마음에
어깨를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더니 이눈이 하는 말
게집애가 존 안전해야지 한다

꽃길이 향기롭고 바람은 시원해서
휘파람 불며 두 팔 벌려 휘젓고 걸었더니
여자 하는 짓이 선머슴마니
천둥처럼 아직도 먹었달다

잔디에 누워 두 다리 쭉 뻗고 노래를 불렀더니
가시나 하는 짓이 시집가기는 특렸으며
자고로 여자는 다소곳한 맛이 있어야한다고
이조 역사부터 종교 철학으로 동서양이 나온다

이 천하에 무식하고 자유를 모르는 자는
너 아니면 사내가 없고
시집 아니면 갈 곳이 없다더니

시시콜콜 잔소리에 배짱대로 해달라니
나도 사람인데 어찌 평생을 네 종노릇이랴 말이나

짧은 세상에 뽕 세 끼 먹고 살기를
이것 다지고 저것 가리고
요것조곳 다 참견이니
인생이 슬프고 괴로운 것은 당연지사니라

설

립

를

를

여는 시	2
인사드립니다	4
기구소개	5
각 단대 여학생부 소개	7
강연안내: XX와 XY의 거리는?	9
여성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모색	16
그것이 알고 싶다! 성폭력특별법	26
시사상식: 생리휴가무급 논쟁	32
문화비평:	
나는소망한다내게금지된것을 <소설>	35
영화 속의 여성의 삶 읽기 <영화>	38
함께 보고 함께 얘기하는 영화	42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46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언제나 시작의 설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시작과 함께 표현과 창조의 공간
제 10대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 문을 열기 위해 달려온 가쁜 숨을 가다듬고,
우리들 삶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이 필요하겠지요.

당/당/한 자 기 표 현,
창/조/를 위한 이유있는 일 상 의 파 괴!

시립대 전농별 곳곳을 치고 오를
여러분의 힘찬 합성을 기다립니다.
꾸부러진 길을 끝까지 떠나가는 일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발걸음에서부터입니다.
변형된 반쪽에서 온전한 하나로 가는 길!
총여학생회는 완전한 인간됨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머무름이 아닌 비상을 위해 재도약하십시오.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시작 속의 더 큰 희망을 위해!

총여학생회장
이 모니화
부총여학생회장
주 율 희

기구소개

총여학생회는 뭐하는 곳일까?

많은 학우들이 여성문제를 여자와 남자와의 신체적 차이 즉 힘이 센가 세지 않은가 차이 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많은 여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 여성문제를 없애거나 여성해방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래 여성장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자신이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느끼는 여성이라는 벽은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단지 성만이 틀릴 뿐인데) 받는 이중 삼중의 억압과 착취를(엄연히 객관적으로 억압과 착취는 존재한다)깨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총여학생회,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뭐하는 곳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아주 쉽게 얘기 할수 있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학생회가 학우들의 것이듯 총여학생회 또한 여학생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는 시립대 전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 자치 기구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다른 학생회기구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 총여학생회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생활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올바르게 제기하고 이것을 극복,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즉 위에서 잠깐 언급한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학생회 속에서 풀어내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그럼 총여학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총여학생회가 일반 다른 학생회기구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해도 학생회 기구이기 때문에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는다. 즉 학내 여학생복지와 가장 문제가 시급한 여대생 취업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문제를 학내에 확산시키고 이해시킬수 있도록 여성학 강좌와 계속적인 선전작업을 해나간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공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인 기지촌 활동이 있다.

그 밖에 총여학생회기관지인 '햇살'지를 발간하고 메이크업강좌나 면접학교와 같은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총여학생회가 올 일년동

안 구체적으로 할 일을 크게 잡아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사업들을 열거하면 이 사업들이 여학생들에게 또는 시립대 전체 학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이 모여서 시립대 여학생운동(여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깨뜨려나가려는 노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여성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대여학생부 소개

문/리/대

여학생 협의회장 전통과 91 최 미 화

여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모임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구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 어려움(취업차별, 성폭행...)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지 때문이죠. 그래서 각 과에는 대학생활을 스스로 풀어가려는 학년별 여학생모임이 있기도 하고 여성문제 연구모임, 계모임, 여학생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리대 여학생 협의회는 이런 모임의 대표들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간의 여성다움을 요구해 온 교육을 통해 소극적, 개별적 모습이 여성의 특성인양 이야기 되고 강요받아 왔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 데서부터 학내, 사회적 차별을 함께 고쳐나가는 데까지를 문리대의 특성에 맞게 함께 풀어가하고자 합니다.

생활하다 어려운 것 있으면 문리대 여학생협의회에 찾아오십시오.

기뻐서 펄펄 뛰면서 도움주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지금 출발의 때에 하고 싶은게 너무 많으시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공/대

공대 여학생부장 화학공학과 92 김 미 풍

충격 선언!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부푼 희망과 아울러 작은 불안이 함께 자리하고 있겠지요 많은 바램들을 행동으로 옮겨볼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하는 어쩌면 너무나 큰 장벽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대 여학생사랑모임(공대 학생회 여학생부)는 여러분이 시립대라는 생활터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 공과대에서도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느끼기 위해 무수한 희망과 무한한 믿음을 바탕으로 작은 자리지만 큰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남학생들과 함께 건강하고 바른 여학생으로 한 사람의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고민을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가 주인됨으로 그 방을 차지해 봐요, 잘 웃을 줄 아는 여유로움으로 내 옆의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생활해 갑시다.

어느 국민학교 국어시간이다. 선생님께서 '덩달아'를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하라고

하신다. 한 꼬마가 손을 들고서 말을 한다. 덩달이에게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덩달아 학교가라.” ... 더 이상의 코메디는 모른다.

경/상/대

경상대 여학생부장 회계학과 92 조 윤 경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며 2박 3일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경상대 여학생부는 아직 초보지만 94년을 맞이 하며 당차게 일대도약을 꿈꾸어 봅니다.

여학생부라하면 무언가 여학우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만인평등이 골수에 박힌 우리 학우들 특히 여학우들은 남학우들이 차별당하는 것 같아 괜히 민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남자의 옷이 여자의 옷과 다른 것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수한 여학우의 요구와 이해를 모아내고 우리의 창조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차별의 장막들을 가장 가깝고 단순한 것부터 하나하나 허물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변치않는 일하는 여학우들의 목표입니다.

경상대 여학생부는 이런 목표를 위해 하나의 삼과 호미가 될 것입니다. 94새 내기를 맞으며 달뜬 마음에 지리한 방학을 후딱 몰아치우고 갓 핀 인화로 휘황할 교정을 떠올려 봅니다.

강연안내

XX와 XY의 거리는?

초씨는 이미 취직에 대한 고민을 중단했다.

“대기업 인턴사원으로 일했는데 정식사원 선발과정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채용된 남자선 배터 비교해보니 학점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라는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했나 짐작할 할 뿐이죠. 기업들이 공채별 차이를 밝히지도 않으니 여자라고 떨어뜨렸다고 할 지라도 학인할 길은 없잖아요? 여학생들은 공채라는 것에도 거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말로는 차별이 없다고 해놓고 면접에서 여자를 낙오시키는 일이 심해지고 하더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정당한 선발이라면 여성들에게 가산 점을 주거나 인정비율로 여자라는 학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과정 내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잖아요. 한참 뒤진 출발선에서 시작한 여성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무리지않, 오히려 이사회는 여성 개개인이 아무리 그런 악조건을 극복해서 남자와 동등한 실적을 갖추어도 배제시켜버리고 마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렵게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자선배들은 한결같이 일단 사회인이 되면 여자는 많이 참아야 한다, 자존심을 버려야한다고 말문을 하는데, 여자도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는 졸업 후 1년 정도 유학비도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가진 후 중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다. 물론 내년에 사들음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을 뉘라고 밝혀야 할지 낯감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크게 걱정되는건 아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국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불안하지는 않다고 한다.

한 국면학교 어교사 모씨는 첫 임신 후 3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조금씩 하혈이 시작되었다. 의사는 유산의 위험을 경고하고는 한 달 정도 쉬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임신한 것이 조금은 '송구스러운'데다가 다른 동료들에게 수업부담을 줄까 봐서 계속 수업을 하며 버텨보았다. 4개월째 되면서 운동선습 등 과로가 겹치면서 심한 통증이 왔다. 며칠 뒤 병원에 가보니 태아는 이미 뱃속에서 죽어 있었다. 분만 촉진제를 맞고 몇 시간 만에 시커먼 핏덩이를 쏘았건만 병가 2일과 일요일까지 겨우 3일을 쉬었을 뿐이다. 입술이 가말게 타 들어갔지만 쉬는 시간에 잠시 양호실에서 한숨 돌린 것이 고작이었다.

유산의 걱정 그리고 유산되어 몸과 마음의 충격을 추스를 수도 없이 공부로 충군해야한다는 것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모성의 '사각지대'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들이 어디 한쪽일까.

직장생활은 쉬는 시간, 휴식도 있고, 희식도 하고, 사람과 대담도 있으니 여유가 있는데, 김안익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고, 하면 풀 안나고 안하면 풀나는 일이라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을 기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땀내하면 모든 주부들이 다 하기 때문이지요. 대개 기숙이라고 하면 그 기숙이 있는 소수의 사람말고 그 나머지는 다 못하는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주부라는 것이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부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숙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학 일이 없어도 되도록이면 집에 있지 않는다. 머머구나 친척들이 많이 오이는 자네
엔 적대로 가지 않는다. 그들은 가말히 있는데도 공연히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펴게 된다.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길이 있
가 몹시 괴롭다. 특히 친척들은 질색이다. 내 얼굴만 보면 "시집은 안 가니?", "취직은 하지
않니?" 하면서 생색을 낸다. 이 말은 겉으로는 걱정을 해주는 듯하지만 자신의 자식들
과 나를 비교하면서 위로를 삼거나 기껏해야 동정하는 것 아니면 호기심 충족용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안하던 회장을 시작했다. 예전엔 맨얼굴에 청바지라 티셔츠만으로도 눈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차선으로 나가면 실업자가 온차원까지 더러워하다고 남들이
안쓰럽게 생각할 것 같다. 또 내자신도 내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맨얼굴로 다니는
것 보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 망신 손자 다 시키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
다. 어쨌든 요즘은 회장을 할 때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귀걸이라도 치렁치렁하게 달고 나가
야 속이 좀 편하다.

위의 글은 '여자 셋이 모이면'이라는 책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을 당
하고 있는 분들의 글을 몇 개 모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무슨 생각들을 했
을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성차별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여성상이라던가, 남성상을 규정할 때
쓰는 단정적인 단어들을 적어 볼까한다.

(공격적이다. 독립적이다. 감정적이다. 감정을 잘 숨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
이다. 지배적이다 수학과 과학을 매우 좋아한다. 능동적이다 논리적이다 세속적
이다. 사업에 능숙하다. 직접적이다 세상 형편을 안다. 모험적이다. 자기 확신적
이다. 야심적이다. 생각과 감정을 쉽게 분리한다. 의존적이다. 외모에 대해 매우
우쭐해한다.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 말이 많다. 둔감하다. 재치 있다. 부드럽다.
외모에 관심이 많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안정에 대해 강한 욕구가 있다. 다정
다감하다.)

위의 단어에서 한 번 자신이 생각하는 남성이나 여성에 해당될만한 단어들을
체크해보고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거의 단언하건데 비
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다. 왜 그럴까? 물론 너무 단정적인 단어들을 나열
했기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사회의 사회화과정에서 그렇
게 길들여져온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진정 우리사회에서의 남 녀가 이토록 다
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와 같
은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 밝혀진바
있다. 이러한 심리학자들은 호르몬 수준(생물학적 요인)은 어떤 행동에서의 성
차와 관계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어떤 행동이 일어날려면 결정적
인 수준에 도달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동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호르몬 수준이 인간을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실제로 나타날 지의 여부는 배경, 즉 환경이나 심리 요인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관념들을 지니게 된 것일까?는 우리 사회에서의 남
녀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차별을 받는다. 아들이 태어나면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간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나, 딸이 태어나면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간의 고통이상의 아픔이 밀려온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면 엄마의
심리를 가장 잘 안다는 애들은 이사회에서의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라나면서 무심코 내 뺨은 부모님들의 말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적 차이에서
도 자신들의 처지를 느끼며 지내게 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조차도 다
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유치원에서 편죽을 낚는 활동이 있었다. 여아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남아들은 모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편죽을 잘 낚는 남아에 대해서 교사가 칭찬을 했고 여아들은 구경
하면서 박수를 쳐주었다. 남아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씩씩함, 통기, 힘을 과시했다.
또한 소꿉놀이를 같이 했면 남아는 남자는 씩씩한 대장이니 이런 놀이는 하면 안된다고 아단
을 맞았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적인 교육은 예외가 아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의미 있는 인물들 역시
대다수가 남자로 묘사된다. 신사임당을 위인으로 생각하는 남자 애들이 거의 없
음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교과서 구성은 커다란 성차별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여성의
이미지와 남성의 이미지를 너무도 확연히 선을 긋고 있을 뿐아니라 중 고등학교에
서는 가사 가정과 기술 공업을 나뉘서 교육함으로써 사회에서의 가사의 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회에서 원하는 일들은 남성의 일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쌓이게 되고 여기에 얽
매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남성상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3남 1녀의 형제 중 장남이다. 내 나이는 33살. 숙부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는 아내라 딸 하나라 이후 동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따로 살고 있다. 장남이라는 출생성분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기술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
을 때 나는 사실 상당히 당황했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었고 당연히 묵묵히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온 내 애기가 다른 사람에게
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겠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아버님도 아버님께
대 더는 못들었던 가난한 농민의 아들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가세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일평생을 사셨다. 젊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는지만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동생들 시집 장가보내야 하고, 어느새 늙어버린 처자식을 부양하느라 중도에 그만두셔야 했다고 한다. 그후론 가솔과 직계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업으로 논길 한 번 돌리시지 않고 하루하루를 칩선을 다하시며 살고 계신다. 그런 아버님이셨기에 막하지 않아도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희망이었다. 그것도 아버지의 채 한 번도 크게 펼쳐보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하는...

나는 그런 아버님 밑에 태어난 장남이다.

성문상 자식의 일에 크게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학과공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다. 아버지 생각에 한국 상황에서 계층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보였을 테니까. 그러나 난 국면학교 이후에는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운동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고 학동적인 생활이 좋았다. 또 무엇을 하면 잘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 실제로 나는 학도호국단장, 응원단장을 하며 한려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학벌에 대한 아버지의 고집은 너무도 완강했다. 특히 나에게 주는 압박감은 정말 컸다. 때론 동생들과의 비교도 서슴지 않으며, 이때 나에게 한복잡한 탓인지 다른 형제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내가 앞에서 고생스레 뚫어놓으면 동생들이 그 공간을 누리고... 물론 그것은 보람이기도 하다.

오전에 댁에서 딸아이들 키우면서 그때의 아버지 감정을 이해할 때가 많다. 첫아이이기 때문에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많은 기대(어쩌면 그 아이에게 압박으로 느껴질지도 모를)의 관심을 쏟아 붓곤 한다. 아차 실을 많군.

대학에 가서 내 일길을 놓고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는 80년대 초반이었고 사회 변혁의 라제가 많은 사람에게 개인의 삶보다 더 우위에 놓아졌었다. 나 역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고 비겁하지 않으려 박버려했었다. 한때 동생들에게 좋은 소리로 웃으며 가면서.(지금은 서로를 잘 이해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또 하나의 경험은 결혼을 앞두고의 갈등이다. 배우자는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선호 유형은 자주 뒤통으로 먹혀났다. 유치하지만 난 원래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여성스럽고 상냥한 여성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시할머니까지 딸린 가족의 딸머느리 역할을 해낼 것이며 딸동서로서 이후 생기기 될 동생들의 가족들과 융화할 있게 살아낼 것인가. 결국 나는 15번에 걸친 선을 보고서야 현재의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 15번의 선을 보는 과정에서 불행했던 경험이 없지 않다. 심중딱구는 반쯤 집고 그저 만나나 보자는 식으로 그 자리에 나왔었다. 뽀족한 수가 없는 한 조건에서는 조건에서는 퇴짜를 전제하고 나 역시 그런 여자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택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그 자리는 증거할 수 없었다.

어쩌다 보니 장남이 갖는 불리한 이야기들만 주를 주를 나쁜 것 같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사회생활하면서 책임감이 강하다. 통솔력이 뛰어나다. 남을 잘 배려한다. 추진력이 있다는 등의 호평을 자주 듣는 것은 장남이라는 위치가 내게 준 장점인 것 같다.

나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를 보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했지만 무난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됐고 나는 그것에 별 불만 없이 대학을 마쳤다. 대학에 다닐 때까지의 나는 진의라 못바람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었을 것이고 꽤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했었다. 또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학교에 다니면서는 전혀 취업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못했다. 졸업을 하고 내가 하려면 일에 매진했으나 결국 허적되고... 그 허적에서 사할하면 사람라도 헤어지고 말았다. 그 당시 나에게서 커다란 상처였으나 지금 한 생각하면 그 여자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나이는 애인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실제적인 생활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때 상식적으로 무작정 기다려 준 여자는 없을 것이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100종 정도의 이력서를 낭비하고 자기소개서는 자다가도 땀을 정도가 되어서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다. 우리 회사는 대부분의 취업예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기업 중 하나이다.

면접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했지?"

"대전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대학도 있었는가?"

시큰둥한 표정이 역력해진 면접관은 이리저리 말을 꼬다가 급기야는 내 고르지 못한 이빨까지 불등고 시비를 논했고 나는 불쾌해지대로 불쾌해져서야 면접을 끝냈다. '또 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기분은 잔뜩 뭉개져 술을 마시고 집으로 내려가는 막차를 탔다. 예상 밖으로 합격통지서를 받았고 그렇게 나의 서울생활은 시작되었다.

우리부서는 !! 대, ?? 대 파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드물게 다른 학교출신이 보이기 는 하지만 주류는 아니다. 업무의 양은 무척 많은 편이지만 사실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의 반복이다. 창의력과 의욕은 단지 상관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가사로 치부되기 일쑤이고 그 보다는 관행과 기존 양식이 우선이다. 그런에도 물론 알력은 대단하다. 주로 직원과 보스 중신의 계파를 중심으로 주류, 비주류로 나누어져 여기에 끼지 못한 가담은 죽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나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직원도, 지연도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나의 성격은 급한 편이고 문제를 보면 참지 못한다. '욱'하는 성질에 뒤에 어떻게 되건 뱉어야 직성이 툭 선다.

머칠 전 술자리에서의 이야기이다. 업무실에서 '입바른' 소리를 작하는 나의 성격 탓에 평소 내리 자주 부딪혔던 부장이 별안간 다른 부서의 일을 내게 물었다. 나는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것도 모르는 놈이 댁 사사건건 내서기는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장의 대담이었다. 사석에서 술을 빙자해 짝아뭇개 자기 쪽 일을 쉽게 하려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순간 참혹해져 수밖에 없었다. 불행하게도 술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 기업마다 경쟁이 치열해져 사원들 몸치치기에 어쩔이 없는데 'idear man, dead man', '항상 신입사원의 자세로.', '한계에 도전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등의 유행어들이 수시로 맴돌어진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체제개선과 경영의 합리화 없이는 내가 보기에 나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졌다.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은 결국 '맨땅에 헤딩하기'에 다름 아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남성들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한다는 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부담도 크고 심지어는 콤플렉스까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들과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남성성은 어떻게 왜곡되어져왔을까?

우선 가부장제의 모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가부장제 가족에서 남성은 가장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가장은 재산관리권, 가족통솔, 각종 공법상의 의무와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 그야말로 한 가정의 대표자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권위를 갖추고있고 경제적인 지위가 있으면 남성은 그만한 권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하나 돌보지 못하는 능력부재

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군사문화를 따뜨릴 수 없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군대 면제 자는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군사문화가 팽만해지면서 그 본질상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은 곧바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왔다. 즉, 남성들은 군대를 통해 군대식 사고 방식, 가치관을 체득하게 되고, 이것은 이들의 삶 전체에 걸쳐 작용하게 된다. 권위에 대한 복종, 경쟁에서의 승리,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 힘을 통한 문제 해결, 적에 대한 정복 논리 등이 이 사회남성 전체의 중심적 가치관이 될 때 그 결정적인 희생자는 다름아닌 '남성'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상은 처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좀더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광고에 나오는 몇 가지 문구를 적어보려고 한다.

"어제 저녁 사랑 받았어요."를 문두로 내세운 어느 공기청향제의 광고는 부부간의 불평등을 조장(아내:서비스 girl, 남편:주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할 뿐 아니라 주부들의 무기력증과 자아상실감을 강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비하시키고 있다.

"잠자리가 편안해야 사랑 받는 거라고."라는 말을 하는 어느 침대회사의 광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익요익에는 아내를 도우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며 빨래를 세탁기안에 던져 넣는 어느 세탁기광고는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라는 말을 하면서 아내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사노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하고있는 것이다. 즉, 이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주부들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항상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나 어느 특정한 여성들만이 직장을 지니는 것이지 가정을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집안에 있다는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왜곡된 여성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물론 여러 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난 제일 우선으로 가부장체제에서의 남성우대 현상을 들겠다. 한국의 유교는 아내를 맞이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잇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칠거지악의 하나로 취급하였고, 씨받이 풍습까지 인정하였다. 이는 아내를 애 낳는 기계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은 가계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도 아들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제사때 남성들만이 참석을 하고 여성들은 음식이나 만들고 또한 손님들 대접을 하는 일을 하면서 뒷전에 밀려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이 사회에 나가서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하는가? 이는 단순히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일어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며 이러한 성차별로 인한 피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양성이 모두 짊어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양성이 바로서고 올바르게 곧은 남녀관에 정립이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성차별을 종식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올바른 남녀관을 정립시키도록 노력을 하며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켜나가야할 것이다.



여성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모색

1.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여성문제란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다른 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억압받는 문제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남녀가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하므로 여성이 차별받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여성문제는 여성의 자연적인 조건을 매개로 나타났으며, 문제여성들의 개별적 문제거리로 치부해 버리기 쉽사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시작된 여성들의 지위 변화는 여성문제를 시대와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기인한다는 사고를 시작하였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불평등한 상태와 여성과 남성을 재단해버리는 관념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 제도, 이데올로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과 활동을 무시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회에서는 각종 공공 분야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취업과 승진의 기회에서 소외당하며, 차별적 저임금을 받게 된다. 가정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사 노동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문제는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 법, 경제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업, 사랑과 성 등의 문제로 남녀 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인간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이며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여성문제의 발생과 전개 과정

:::하늘의 절반에서 땅으로

원시 공동체 사회

인류최초의 원시 공동체 사회는 생산력 수준이 매우 낮아, 노동도구에 대한 집단적 소유로 인한 협동 노동과 평등 분배가 지배적이었다. 오랜 군집 생활을 거쳐 형성된 씨족 사회 초기 단계에 노동 도구가 발

전하면서 개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인 성, 연령 등에 의해 분업이 발달하였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 채집노동에 종사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사냥을 담당하였다. 이런 자연 발생적인 성별분업은 사회적 차별을 수반하지 않고 오랜기간 유지되었다.

원시 사회의 가족과 결혼제도는 결혼상대자의 배제 및 금지 정도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되었다. 원시 사회 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시 사회는 집단혼 형태였다. 이 시기에는 아이의 생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자녀들은 모계 혈통을 따랐고 결혼의 배제도 모계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남녀들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의사와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혼, 성관계를 맺었다. 출생한 아이들은 공동체에 의해 집단적으로 양육되었으며 공동의 어머니 자녀관계를 형성했다. 여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노동 도구, 노동 능력을 가진 인간을 낳고 기르는 능력과 역할에 의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오랜 채집과 사냥을 통해 원시적 농경과 원시적 목축이 발달하여 인류 최초의 중요한 사회적 분업이 나타났고 원시 사회의 생산력 발달을 촉진시켰다. 금속 도구와 목축의 발달은 농경에서 금속도구와 가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 노동 분야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점점 확대시킨다.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씨족 제도와 인간 의식이 발달된다. 결혼제도 좋은 집단이 보다 축소되고 명확하게 되면서 집단혼은 사라져가고 결국 결혼가능한 관습적인 대우 관계가 고정되어갔고, 드디어 한 여성이 한 남성과 결혼하는 대우혼을 발생시켰다. 대우혼 초기의 남녀간의 결혼과 이혼은 두사람의 자유의 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분업의 발달과 목축에서의 잉여의 발생은 원시 공동체 사회의 평등한 인간관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인 노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생산 수단의 공동체 집단 소유, 노동 생산물의 평등분배는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했고, 협동 노동보다는 개별 노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생겨났다. 여기서 생산 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발생하였다. 씨족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생산력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심화되었고, 점차 여성들은 사회적 생산의 주요한 부분에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갔다. 결혼관계에서도, 대우혼은 점차 여성들에게만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양여를 소유하게된 남성들은 모계 상속보다는 자신의 자식이나 처에게 물려주는 새로운 상속제도를 원하게 되었다. 대우혼 말기엔 가부장제 공동체가 모계 공동체 사회를 대신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철제도구의 사용으로 사회의 생산력 발달이 가속화된다.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고, 생산 수단과 물질적 부를 독점한 소수의 남성들이 생겨난다. 이들은 자신의 부의 축적을 강화시키고, 무산자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지배를 위해 통치 질서를 조직적으로 확립한 국가를 형성시킨다. 지배 계급은 세대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계급 지배를 지속, 강화시키기 위해 남성 중심의 일부 일처제를 확립시킨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남성에게 철저히 예속되고 여성은 남성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인 자식을 낳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족, 결혼 제도의 세계사적 대변혁은 큰 어려움 없이 오랜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제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억압, 착취받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노예제 사회

노예제 사회의 생산력은 금속 도구의 사용으로 인간노동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 노예제 사회에서의 생산관계는 일체의 생산 수단과 생산자인 노예를 소유한 노예 소유주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회는 노예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 통제로 유지되는 계급 사회로, 지배 계급인 귀족계급, 피지배 계급이면서 귀족 계급에 인격적으로 예속되지 않은 자유 시민계급, 직접 생산자이며 지배 귀족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계급으로 나누어 진다.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사회로, 모든 계급의 여성들은 같은 계급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당했다. 가부장제는 사회적 생산과 소유의 단위로 그 물질 토대를 갖고 노예제를 유지시키는 사회 조직이었다. 가부장으로서 남성은 사회적, 법적으로 가족원인 아내, 자식, 노예에 대한 지배 통솔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가족원의 생사 여탈권까지 소유한 절대적인 가부장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회, 경제, 정치적 권한과 신분 및 재산 상속은 남성, 즉 부계로만 계승되었다. 여성은 결혼과 이혼의 자유도, 재산을 상속할 권리도, 자녀에 대한 친권도 갖지 못했다. 강력한 가부장제의 확립과 여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멸시와 증오는 상호 작용하여 여성과 여성의 성, 더 나아가 여성과의 결혼까지도 그 존재나 의미를 왜곡, 부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습 및 이데올로기를 형성했다. 그러나 여성이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 노동에의 참여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랐으며, 차별과 억압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귀족계급의 여성들은 자신이 타고난 신분때문에 지배계급에 속했음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직접 소유, 상속하거나 정치, 경제적인 일들에 참여, 결정, 분배 받을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활동의 길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가내 노동도 노예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남편의 지위와 재산을 상속할 적자를 낳아 주고 남편의 성적 대상물로 만족해야 했다.

자유시민층은 상인, 자유농과 수공업자들로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세명의 노예 및 가족과 더불어 소농을 경영하거나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이 계급의 여성은 남편과 더불어 농사를 짓거나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였고, 가내의 모든 일들을 책임졌다. 여성들은 가족 성원들의 생계와 세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이며, 생산 노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는 일체 주어지지 않았다.

노예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생산자인 노예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아닌 노동도구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사회의 생산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으나 생산물의 소유, 유통,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노예는 자신의 노동력과 함께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팔렸다. 이에 노예들은 가족을 이룰 수 없었고, 설사 이룬다 하더라도 주인의 의사에 의해 언제나 쉽게 해체되는 것이었다. 특히 여자 노예들은 주로 가내 노예로 종사하며 남자 주인의 성적 대상물이 되거나 때로는 주인의 명령에 의한 매춘을 통해 주인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봉건제 사회

봉건제 사회의 생산력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성장으로 노예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봉건영주의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와 농노에 대한 부분적 소유가 생산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다. 농노는 영주의 토지에 부속된 존재였지만 자신들의 생산도구와 경작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농노는 노예와 달리 노동력의 일부만이 봉건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지 토지의 경작권만 갖고 있었으므로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예속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제도였다. 여성의 지위도 봉건적인 예속관계에 의해 근본적으로 규정되었다. 영주의 가부장권은 같은 신분이나 가신들의 아내와 딸들의 재산과 결혼에 대한 지배권뿐 아니라, 자신의 영지에 결박되어있는 농노의 아내나 딸들의 노동과 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건 사회 역시 계급 지배사회로, 여성이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억압과 고통의 정도와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지배계급인 영주의 아

내나 딸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어 재산, 경제, 정치권은 물론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결정권도 없었다.

수공업자와 상인층은 도시의 발달에 따라 번성하였다. 이 계층 여성들의 생산 노동에의 참여는 사회적 생산 활동과 가정 생활이 공간적으로나 일의 내용면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런 상공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도시에서 극소수에 불과했다.

봉건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생산자인 농노 계급의 여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 공동체였던 가정에서 가사와 생산을 담당하였다. 농노들은 전 가족이 생산에 종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소나 말처럼 일했다. 아내는 여성이기 이전에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건장한 노동력이었고 협력자였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 대한 존중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아내는 생계유지를 위한 평등한 협력자이기 전에 남편에게 봉건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봉건제하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봉건적인 예속관계와 이데올로기는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현사회에서도 여성을 억압,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다수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는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임금 노동자는 봉건제 사회의 해체 과정에서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노동력의 판매에 있어 신분적 예속이나 인격적 예속등과 같은 경제외적 강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의사와 판단에 의해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로 되었다.

생산의 분화와 집중은 가정에서 생산을 분리시켰고 가정은 단지 소비의 단위로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생산 노동에서 분리되어 소비 중심의 가사역할만 담당하게 되었다. 여성은 가사의 전담자, 남성은 사회적 생산의 전담자란 성별분업이 고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부여하면서도 성별분업을 통해 가사의 전담자로 묶어 두어 이중 노동을 부담하게 하였다. 자본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별 분업의 고착화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을 각 개별가정에서 여성이 무보수 차원으로 전담하도록

강제하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 여성 노동이 대거 참여하여 자본의 직접 착취 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발전하여 생산에 기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생산물의 양과 질이 기본적으로 기계에 의해 규정되어 사람들은 성과 연령등의 개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은 성인 남자 노동자보다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여성과 연소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여성은 더 이상 가사의 전담자로만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자본의 요구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유입되었다.

자본은 사회의 제반 차별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력 자체가 갖고 있는 개인적, 자연적 속성인 성, 연령, 인종 등을 차별하고 분리시켜 이윤을 극대화한다. 특히 자본의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는 노동영역의 분리, 노동조건과 노동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의 전담자인 동시에 생산 노동자로 존재한다. 자본은 두 노동영역에서의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착취를 은폐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매개로 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 보편적인 문제인 계급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자연적인 조건인 생물학적인 특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 착취, 억압의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학(Women's Studies)

약 2백년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투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투쟁은 흔히 감정적으로 되기 쉬웠으며 1920년 참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에서처럼 현안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가라앉곤 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새로운 여성 운동의 일어났고 여성학이 형성되었다. 당시 서구의 민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운동의 참여과정에서 여성들은 불평등한 관계로 서있었고, 계급 문제나 인종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여성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인식의 전환은 여성 운동을 활성화시켰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이 여성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고 여성학이 등장하게 된다.

여성학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 학문과는 달리 뚜렷한 가치 지향성을 띠고 있다. 바로 여성이 당당한

인간으로 서기위한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이나 여성모두가 성별에 따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여성을 인간적으로 억압하는 사회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남성까지 억압하고 말기 때문이다. 다른 반쪽을 억압하고 목조르는 잘난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성학이며 여성운동이다. 남성학을 세우겠다는 주장도 한편에서 일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여성학과 다른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남성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 잡기위한 여성적 시각이다. 여성학은 이러한 편파성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수정하여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여러 학문과 상호 연계를 맺게 되고, 여성학의 분야는 매우 광대할 수 밖에 없다.

4.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이 한차례의 유행을 타고 있다. 페미니즘을 앞에 달고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주의 또는 여성해방론으로 국내에서 번역되고 있다. '여성해방주의'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페미니즘은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신념, 믿음을 말한다. 즉 페미니즘은 여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자유스러움과 불이익을 거부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현재 페미니즘을 무엇으로 볼 것이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몇가지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여성을 독립적인 개별인간으로 간주하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성이 현재 하는 역할과 일, 가정과 사회내에서의 위치와 무관하게 여성을 독자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이다.

둘째, 페미니즘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권리를 왜곡시키는데 기여해 온 기존의 신념과 허위의식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여성을 하나의 완성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을 보조하고 남성의 부속물로 인식하도록 하는 통념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많은 것들에 도전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페미니즘은 변화를 지향하는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조건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문제의 기원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 방향에 대한 견해가 각기 다르다. 여성문제가 특정시대 특정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듯 이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이론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상의 사회,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론 안에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페미니즘 이론으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맑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이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흥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에 생겨났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두 페미니즘은 세계관과 활동의 영역을 달리 했는데 먼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당시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적 분위기에 보조를 같이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강조했다. 여성문제의 발생원인을 제도, 권리상의 불평등에 두고 문제해결의 주된 방향을 남녀평등교육, 참정권 운동 등에 두었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그 시기의 계급적 억압상황과 여성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생활상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의 발생으로 보고 있어서 여성해방의 길을 사유재산제의 폐지, 즉 계급의 철폐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류역사 속에서 여성문제의 기원을 찾고 억압상황을 살펴보고 해방의 전략을 조망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성별분업 자체가 여성억압을 가져오기 보다는 남녀간의 분업을 차별로 전환시키는 계급의 발생이 억압의 근본요인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서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자리잡고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920년대 여성참정권 운동이 활발했던 서구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확보되자 이후 여성운동이 침체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을 위시한 유럽국에서는 인권운동, 사회운동 등과 더불어 여성운동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각도로 여성문제를 들고 나섰다. 이 시기에 새롭게 대두된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다. 물론 이때에도 자유주의, 맑스주의 페미니즘 역시 공존하면서 각 페미니즘은 사안에 따라서 정치활동에서는 연대를 하다가도 이론적으로는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맑스주의가 남성중심 사상에 여성의 문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이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중심성을 앞세운다. 여기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이 순수한 애정만으로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로 새롭게 조명되며 동시에 강간, 포르노, 성의 상품화, 성폭력 등이 여성을 억압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철저하게 해부되어야 할 과제로 설정이 된다. 동시에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억압의 일차적 요인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으로 규정되고 있어, 여성의 적은 남성이며 타파되어야 할 대상은 가부장제로 여겨진다. 이 페미니즘은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해방을 위해 레즈비언이 될 것을 받아들여도 좋으며 결국 분리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성의 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이 속한 사회경제적 상황 전반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가 동시에 분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동시에 분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맑스주의와 급진주의 각각에서의 이론적 통찰력을 적절하게 통합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하에서의 여성문제, 여성억압의 상황을 설명할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성폭력, 성의 상품화등 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가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현장내에서의 성의 문제가 계급의 논리와 어떻게 맞물려 공존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핵심적 요인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성별분업 양자에 두고서 여성의 몫으로 규정되는 성별분업의 논리를 타파하는 것을 해방의 전략으로 삼는다. 따라서 여성억압의 기원과 해방의 전략은 가부장제, 성별분업의 타파와 계급의 타파, 이 양대 축으로 서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초근에 대두된 이론으로 이전의 페미니즘을 주도해 왔던 여성문제의 이론화, 체계화를 반대한다. 또 여성억압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것, 가시적인 현상들로 간주하여 접근해 오던 기존의 페미니즘들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세계, 무의식적인 측면들, 형상화하기 어려운 여성의 억압상들을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 들인다.

우선 지배적인 언어질서에서 억압되어 온 심리 공간 혹은 타자의 공간이 여성 혹은 여성성으로 부호화 된다고 보면서, 이런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이성-감성, 정신-육체, 남성-여성 등)와 자기 동일적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 적용하여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가 남녀 이분법을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남성과 대립된 여성보다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요즘 여성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인다. 그러나 올바른 여성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빼돌려진 하나를 다른 쪽으로 -또다른 편향으로- 꾸부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곧은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 그 온전한 하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이다.

성/폭/력/특/별/법

I. 성폭력 특별법 제정

지난 91년 부터 '한국 여성의 전화' 등 12개 민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벌여온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이 '93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94년 4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그간 성폭력을 개인적 범죄로 간주하며 순결상실로 보는 잘못된 통념에 입각한 현행법과 수사관행,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제도적 대책 하나 없이 방치되어온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권익을 회복시키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자체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담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제정 성폭법의 내용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성폭력의 사회적 파급 효과

남자들 중에는 복잡한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속에서 치한의 오해를 받은 경험 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여자들에게 괜히 의심받기 싫어서 두 손 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간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앞에선 아가씨가 자꾸 이상한 눈으로 뒤돌아 보아서 할머니 있는 쪽으로 자리를 피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여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다.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폭행 위협과 불안은 여성의 행동 반경을 좁히고 정보, 기회에의 접근과 통로를 차단하여 여성의 사회적 비성숙, 즉 힘(power)에서의 제의를 경험케 한다(탈권력화). 또한 이것은 남성에 대한 공포와 적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결국 양성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전인적 관계를 막는 구실을 하게 된다.

III. 기존 성폭력 관계법과 제정 성폭법 비교,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1. 실체에 관한 부분

①개념 규정

기존 성폭력 관계법(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폭력 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점 제정법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그간 여성계에서는 전근대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정조'라는 개념으로 성폭력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자유의사 침해의 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정조문제이기 이전에 폭력적 문제인 성폭력을 사회적 폭력 또는 인권 침해로 인식시키지 못하게 하므로써 인권의식을 마비시키게 된다.

둘째로, 규정의 개념적인 전제가 정조로 되어있을 경우 '깨끗한 여자'와 '더러운 여자'로 이분화되어 피해자의 직업과 과거 경력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전력이)추궁당하게 되어 소위 '깨끗한 여자'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만들어버린다.

---정조라는 단어를 남자에게 사용 못 할 바 아니고 남녀를 막론하고 정조는 지켜져야 하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피해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개념이 그 동안 대체로 여성들에게 사용되어왔고, 강제 추행죄와는 달리 강간죄의 경우는 부녀, 즉 여자만을 그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인식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즉 위의 결정권이 침해된 질과 양에 의하여 오직 성폭행 행위의 유무죄와 그 정도를 추궁해야 한다).¹⁾

② 범죄 구성 요건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때도 정조에 관한 죄라는 개념을 도입시켜 '폭행이나 협박'시에 피해자의 행동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저항의 강도와 유무가 범죄성립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의 최면 상태'와 같은 몸의 마비를 일으켜 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제와 폭력여부를 가지고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강제적 성폭력(특히 데이트강간, 직장내 성폭력)등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또한 '부녀자에게'라는 규정의 해석에서는 아내를 폭력과 강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배우자 강간역시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③범죄 유형

현재 정조에 관한 죄는 법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해석되고 있

제정 성폭법에서는 기존 성폭력 관계법에서 배제되었던 성폭력 범죄 유형중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i. 성희롱죄

ii. 비동의 간음죄

iii.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등에 있어서 직장상사 뿐 아니라 동료에 의한 성폭행도 규제할 것

iv. 중추행죄-구강, 항문에 성기를 접촉하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 이외의 물질을 투입하는 행위

---이러한 성범죄 유형을 논할 때 유의할 것은 이것을 연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시간주와 같이 동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절차에 관한 부분

① 재판 수사과정

i) 친고죄

친고죄란 제 3자는 신고할 수 없으며 오직 피해 당사자만의 신고에 의하여 고소, 피의자 수사가 이루어지는 법규정을 말한다. 친고죄는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현재의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입게될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친고죄 존치로 오히려 범죄 신고율을 낮추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실정법에서는 기존 강간, 치사상, 강제 추행, 치사상 및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 강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제정 성폭법에서는 여기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ii) 공소시효

기존 실정법에서는 피해 직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개의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과 갈등 때문에 제 3자에게 피해상황을 고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정법에서는 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친고죄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성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90년)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1992년)에서 전체 연구의 한부분으로서 연구된 결과가 있다.

기존의 조사 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친고죄는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고 가해자들의 가중된 폭력과 상습적인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6개월로 되어 있는 고소시효는 많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사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개인의 순결상실로 보는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꾸어 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점은 일반인의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10월 28일 여성백인 회관에서는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폐지의 입장이 전체 89.1%로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폐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55.8%로 나타나 폐지의 문제와 함께 명예보호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iii) 피해자 보호절차

제정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심리의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기존 실정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많이 남아 있다.

· 피해자 대리인제도가 배제되어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의료조치(병원의 진단서 발급의 무 명시, 진단서 발부와 치료시 의료혜택 등)가 배제되어 있는 점

· 증거능력의 특례가 배제되어 있는 점

· 기존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성폭력사건에도 확대적용하는 배상판결제도가 배제되어 있는 점

· 검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여 부당한 수사로 연결된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점

·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위원회'와 같은 최종 책임기관이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 따라서 법집행과정에서부터 성폭력상 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의 책무 이행여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 그 외의 것들

그외에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정 성폭법은 기존의 실정법을 보완하고 있다.

· 상담소의 설치(제 23조), 보호시설의 설치(제 25조), 경비의 보조(제 30조)등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미흡하게나마 명시하고 있는 점

· 가해자 처벌규정에 있어서 형벌제도 외의 보호관찰(제 16조), 보호감호(제 17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 피해자 보호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제 21조), 심리의 비공개(제 22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IV.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닙니다.

1. 성폭력 피해 - 심각한 후유증 유발

이제까지 성폭력의 실상이 은폐되어 온 것처럼 피해 여성들의 경험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왔다. 그저 신문에 보도 되는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음독, 투신자살 등을 통해서나 간간히 피해 정도가 알려져왔을 따름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① 신체적 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1989년)에 의하면 피해자의 10%가 상해, 12%가 임신, 1.3%가 성병 감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된 사례에서도 의하면 임신이나 파열 등이 등의 외상이 발견되어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 성기 구조의 변형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파가 파열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신체적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경제, 사회적 피해

직장 성폭행의 경우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사표를 쓰고 직장을 그만두는 예가 허다하다. 강간을 당하고도 도리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지속적으로 돈 요구와 성폭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임신이나 신체적 손상 치료에 대한 대가도 피해 여성이 치르고 있다. 가정 파괴범이란 용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순결상실로 인한 손상감과 자격지심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순결관은 피해여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한다.

③ 심리적 피해

피해를 당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해 정도와 지속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증세를 나타낸다. 그리고 심한 우울과 좌절감에 시달리며 순결 상실에 대한 자기 비하 감정이 크다.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 증오 등의 감정 때문에 삶 자체가 어둡고 폐쇄되어간다. 심한 경우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결혼해서도 원만한 생활을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을 강간소크증후군으로 부르는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④ 사회 전반에 끼친 심각한 피해

성폭력은 피해여성의 가정을 비탄에 빠지게 하고 가족간의 관계도 손상시킨다.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 양 가족을 불행에 빠뜨린다. 또 폭행은 매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 매춘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춘을 하게 된 동기의 30% 정도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순결 상실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여성의 생활을 제약한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의 불안감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제약하고 행동과 사고의 위축을 가지고 온다. 이는 여성의 본래적 권리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다. 또한 남녀관계를 적으로 만들어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렇듯 성폭력은 우리사회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대 여성 범죄이자 사회적 범죄이다.

2. 남은 문제들

앞으로 법안의 후속작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총칙과 성범죄유형등을 담은 제 1장과 제 2장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될 폭이 좁기때문에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부분인 제 3장에서 그 이념을 충분히 살려 특별법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각 조항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발생 제 3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신고율이 2.2%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1위가 되지 않을까?



생리휴가 무급 논쟁

1. 근로 여성 복지 계획안 발표

지난 1월 4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 현재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 전, 후 유급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근로 여성 복지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중 '87년 부터 실시돼온 생리휴가는 그간 경영주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존치돼 왔으나 이번 노동부의 계획안에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25-34살 여성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도 모성 보호와 별도로 생리 휴가등 유사 모성보호까지 관련 법규에서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데...

2. 종폐 논쟁의 현장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산전, 후 유급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기 쉬운 오해가 기업측에 여성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 여성이 평생 동안 2회 출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휴가 연장분 60일은 생리휴가 5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쇄 가능한 부분이다. 기업측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경중등에서는 생리휴가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그 자체의 의의가 사라졌고 현행법상 모성보호비용이 거의 사업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여성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김영삼 정권과 같은 든든한 배후세력(?)이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종폐논쟁이 활발하다.

노동부의 기본 계획안을 환영하는 쪽은 노동부가 내세운 생리휴가 무급 전환이 기업의 여성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대하며 출산휴가 연장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성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리휴가가 유명무실해져 모성보호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무급으로 전환한 후에 생리휴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쓰면서 이 일을 계기로 기업측에 고용차별 요인 불식에 대한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쪽은 노동조건 개선없는 생리휴가 무급 전환은 모성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급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생리휴가 무급론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노동조건이 외국의 경우 주 35시간 근무에 여름, 겨울, 크리스마스휴가 등 1년에 2개월 정도가 휴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 50시간 근무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평면적 비교에 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관계기관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부 기업이 생리휴가 사용 억제에 위해 생리수당 - 보통 일일 평균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 지급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리휴가나 생리수당은 고질적인 여성 저임금체제와 남녀불평등한 노동조건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생리휴가가 유급일 경우에도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무급일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혀 없게 돼 노동부는 결과적으로 모성파괴의 지름길을 제시할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3. 잊지말아야 할 것 - 모성보호는 여성보호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높은 생리 수당의 유혹때문에, 또 결근할 경우 자신의 몫까지 떠맡아야 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한다.

아마 폐지론자의 예상대로 생리휴가 무급전환 후에는 여성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여성고용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존치론자의 주장대로 현재의 남녀불평등한 임금체제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여성은 더욱 고달파 질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계획안에는 여성고용에서의 경제적 효율의 측면만 강조되었지 인권확립이나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이 도외시 되어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해서 모성보호를 여성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전근대적이며 근시안적인 것이다. 모성보호란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인 모성을 사회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비용이 사회적 비용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한국페미니즘 문학의 금지된 문을 열다.' 는 식으로 새로운 페미니즘의 장을 열었다고 하는 이 소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토론 거리가 제공된다.

「또 하나의 문화」에 나오는 비평을 적어 보겠다.

이 소설의 주인공 강민주는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예는 여성으로서의 억압된 체험을 별로 갖지 않고 성장한다. 이런 강민주의 납치극은 공동체를 위한 공헌이나 여성해방을 위한 행동이라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해방론은 '언제나 같은 담론의 반복이외에 실체는 없고 탁상공론만으로 세상이 변한다고 믿고 있는'(202쪽)이라고 나온다. 여성운동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문장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은 여성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여성이나 반 페미니스트에게 오히려 즐거움을 주는 부분일 것이다.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페미니즘에 위배되는 점은 남성 중심의 지배 종속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강민주 자신의 문제이다. 남녀간의 불평등한 지배 종속관계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신이 나섰다 주장하지만 자신은 황남기를 지배함으로써 똑같은 형태의 지배 종속 구조를 재현하고 있다 백승하에 대해서도 폭력과 부드러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남성중심적 지배 방식을 그대로 펴고 있다.

강민주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은 교성에 대한 부분이다. 남성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만을 갖고 있는 강민주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부드러운 남성은 그녀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이성의 사랑은 모성성과 혼동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독자들은 강민주의 감정 변화에 경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자적 입장에서 주인공을 관찰하게 된다. 강민주와 작가 모두 이성과 모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민주가 백승하의 아들을 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납치하는 행동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행동이었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까지 포용하는 모성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보기는 힘들다. 강민주가 백승하의 아들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 역시 아버지의 역극을 쏙 빼어닮는 아들의 모습에 백승하를 투영시킨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풍요를 느끼게 된 것으로 독자들은 읽고 있다. 그러므로 강민주의 이런 표현들을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밝힌 대로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모성'(15쪽) 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있다.



백승하와 강민주가 함께하는 이오네스크의 연극 역시 토론의 주제로 할 꺼리가 많다. 강민주는 '남성의 사육,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전개에서 독자가 받은 느낌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강민주가 백승하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극 연습을 통하여 백승하가 강민주를 길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현실에서는 강민주가 납치를 한 사람이고 백승하가 포로인데도, 극 속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뒤바뀐다. 두 사람의 관계가 교수와 학생, 연출자와 연기자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독자는 백승하가 점점 여유만만하게 변하고 강민주가 내심으로는 그에게 종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강민주가 백승하를 납치한 명분이 그가 많은 여성들에게 남자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이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연극 연습은 강민주 자신의 남자에 대한 환상을 키워내는 온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기존 '여성 소설'의 범주를 벗었다는 이 소설이 진정한 유토피아 소설도 페미니즘 소설도 되지 못한 채 연애 소설이 되어버린 점이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뛰어난 글쓰기 역량을 지닌 작가가 맺은 대다원이라고 보기에는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작품의 끝을 보면서 최근에 본 영화 '델마와 루이스'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부장 사회에 대항하는 두여인이 절벽에서 비상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은 가부장 사회에서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향해 온 몸을 내던져 항거하는 모습으로 읽힐 여운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끝난 뒤에도 엄숙하고 숙연한 영상은 관객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러나 강민주의 경우는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황남기라는 남성에게 의한 타살이었으며 이도 역시 질투의 결과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절실한 노력없이 뭉치 모를 부드러움만 강조하다가 사라져 버린 죽음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이 작품은 페미니즘 소설이라기 보다도 반 페미니즘 소설로 보여진다. 작가의 의도는 '낮은 포복을 혐오하고 높이 기립해서 사는 여자', '물살을 거스르며 하류에서 가의 상류로 나아가는 여자'(14쪽)를 그릴 생각이었더라도 독자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벌지않은 돈으로 기생해 사는 한 여자가 혼자서 잘난 척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은 동키호테식의 이야기였다.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것을>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문제성을 많이 탈피한 노력은 보인다. 강민주(최진실)가 백승하를 납치한 명분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백승하가 여성들에게 헛된 환상을 보여주므로 이런 망상을 깨기 위해 납치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라도 여성의 억압을 알려주기 위한 계획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녀가 백승하의 부드러움의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삭제되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강민주가 그렇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녀의 심복 황남기에게 대하는 면이나(물론 재미를 위해서일지라도) 소리치는 부분은 히스테리적인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소설이 이렇게 반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도 대중매체에서 왜 그렇

게 페미니즘 소설로 선전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상업주의에 대한 토론은 접어두고라도 문단에서 인정받고 있는 작가가 페미니즘에 관해서 왜 이렇게 밖에 쓰지 못 했을까? 결국은 일반 독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작가의 페미니즘 인식과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가진 사람이 곧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통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셈이고 여성해방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여성해방에 관한 단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여성해방운동을 한마디로 처리해 버림으로써 또 다른 만족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이 작품은 페미니즘 소설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독자로 하여금 페미니즘에 대하여 부정적 인상을 갖게 하는 악영향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이 작품의 의의를 구태여 찾아본다면 이책이 몇가지 구체적 장면에서 우리들의 느낌과 그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피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의 여성의 삶 읽기

영화는 삶을 읽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텍스트이다. 우리는 영화속에 담겨진 삶의 모습을 실제 현실에 비추어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영화를 만든 사람의 시각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은 많은 토론거리를 만들어 낸다.

여성의 삶을 다루는 영화들은 흔히 두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우선 그동안의 많은 영화가 여성의 삶을 남성중심적인 입장에서 그려왔다. 이는 사회현실 자체가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며, 또한 그 사회속에서 길들여진 눈으로, 즉,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려낸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남성제작자들이 만든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적 편견이 더 크게 주입된 것도 또다른 이유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입장에서 여성의 삶을 진솔하게 접근한 영화들은 많지 않다.

또다른 특징은, 근래에 와서 여성을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삼아 호기심과 쾌락의 본능을 자극하는 소재로 만드는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영화속의 여성이 과거보다 더 왜곡된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에 있다. 여성의 성과 육체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영화들은 극히 여성 비하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현실으로 그려내기때문에 여성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항하여 한편에서는 이러한 영화세계를 비판하고, 편향된 남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현실을 열심히 꿰뚫어 보고 여성의 억압과 차별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영화들이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여성의 부당한 현실으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식화의 노력과 함께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대안을 추구해보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영화를 만들려는 노력도 주목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관점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문화, 그리고 기존사회를 지배하는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이를 지양하여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 소위 여성영화라고 일컬어지는 상업물들은 주로 이러한 페미니즘 관점과는 상관없이 여성차별의 현실을 조금 비중있게 다루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페미니즘 영화를 개척할 여지가 적지 않다.

다음에 소개하는 세 경우의 영화를 보고 진정한 페미니즘 영화를 생각해보자.

1. 사랑과 일과 결혼

많은 영화속에서 여성의 삶은 흔히 남성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비 그려진다. 특히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성의 삶이 많은 감동을 자아내는 소재로 등장한다. 사랑이 여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영상의 세계는 보통 여성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영화「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1989, 블라디미르 멘쇼프감독)는 '여자의 행복은 오로지 남자 잘만나기에 달려있다'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사회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영화이다.

세처녀의 꿈과 희망이 결혼의 성패에 의해 각기 어떻게 운명지워지는가를 꾸밈없이 그리고 밀도있게 묘사하였다. 또 여성들이 얼마만큼 결혼에 모든 기대를 걸고, 이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당하게 되는지도 절감하게 만든다. 특별한 심적 부담을 주지 않고 비교적 담담하게 여성들의 일생과 일상적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여성으로서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의 굴레와 이에 따른 그들의 미묘하고 착잡한 내면세계를 잘 감지하게 하는 설득력이 있다.

2. 가족제도와 여성

현대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된지 오래이다. 그위기는 주로 가족의 기능이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세대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종전의 부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힘든 만큼 다양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여성들은 모성의 역할에 집착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삶이 충족될 수 없다는 자각과 함께 갈등을 느끼고 있다. 주부에게 주어지는 삶의 공간이 자기 발전을 위한 일과 세계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에, 게다가 남편이 자신의 일과 승진에만 전념한 채 아내의 소외감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할때에 번민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 로버트 벤튼감독)는 이러한 번민 끝에 아내가 남편과 아들 곁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현대가정이 당면하는 실마리를 잡는다. 본격적인 문제는 아내의 의무로만 제쳐 아들 양육의 모든 일과를 하루아침에 혼자 떠맡게 된 주인공 남자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부가 없는 가정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통념에서 또 다른 주부나 주부역할 대행자를 찾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주인공은 모성의 역할을 아주 진지하게 습득하는 노력을 하며, 이과정을 깊은 감동과 유머 속에서 보여준다. 생소한 가정살림을 하느라 실수연발과 당혹감으로 일과의 리듬이 깨지게 되고, 직장생활에까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주인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도리어 직장의 권고 사직까지 감수하고 보수가 더 적은 일을 찾으면서까지 부성의 역할을 터득하고 충실히 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와같은 남자주인공이 아들의 양육때문에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들은 오늘날 취업주부가 직업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시달려야하는 현실의 무게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한다.

이영화를 보다 감정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삶의 안정을 찾은 아

내가 요구해온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인공이 법정에서 부성의 권리를 인정해줄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년간 아들을 키워오면서 직업보다 아들 양육을 더 소중한 것으로 선택하게 된 주인공의 부성이 얼마만큼 강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실감하게 된다. 또 모성은 여성의 선천적인 본능이 아니라, 남성의 부성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얻게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즉 양육의 경험과 정이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아이에 대한 집요한 애착을 만든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부성은, 결국 아내가 법정에 가서 인정해준 양육권을 다시 남편에게 자진해서 양보할 만큼 모성을 압도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결말이 특히 감명깊다. 이주인공의 경험도 부성의 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가정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며, 특히 더스틴 호프만의 독창적인 연기덕분에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

3. 성폭력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포괄한다. 예컨대 강간, 성추행, 각종 성적학대와 성적 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을 들 수 있다. 강제행위는 다양한 형태의 협박, 위계, 위력행사에 의한 강제성이 부과된 경우, 또는 강제력 행사에 대해 직접적인 거부를 하지 못할 만큼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등을 말한다. 강간은 모호한 정조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원의 폭력행사이자 여성통제의 행위이다. 매우 불행하게도 인류역사는 오랜 강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 불행한 일은 이러한 역사속에서 강간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일'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영화「피고인」(1988, 조나단 캐플란감독)은 강간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아주 설득력있게 파헤친 영화이다. 게다가 연기와 연출, 기타 영상적 표현에서도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 많은 토론거리를 제공하는 페미니즘 시각의 영화라 할 수 있다. 강간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 자본주의 문명사회에서 성폭력은 각종 성산업의 발달과 함께 더욱 노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산업은 성범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강간문화'에 길들이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이영화는 한 장면에 담아 고발하고 있다. 즉 주인공 여자가 한때의 남자들이 마치 운동경기를 보듯 흥분하며 환호하고 응원하는 앞에서 난폭하게 운간당하는 장면이다.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가해자들만이 아니라 주위의 구경꾼들까지도 집요하게 추적하여 마침내 교사죄로 감옥에 넣어버리는 쾌거를 올림으로써, 우리현실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아울러 비전을 제시한다.

흔히 강간 범죄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의 신분, 행동거지, 유발요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일쑤이다. 요컨대 '남자가 늑대인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따라서 여자의 처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사회편견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평소에 이성관계나 생활방식이 매우 자유분방한 여자, 게다가 사건 당일에도 스스로 합정을 팅다고 비난 받을 수 있을 만큼 통념상 동

정이 가지 않는 여자를 피해자로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 분명히 "NO"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이 여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강간은 결코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신분 여부를 막론하고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한층 더 돋보이는 것은, 사건을 맡은 여자 변호사와 피해자인 주인공이 계층적, 문화적 격차와 상호불신을 극복하여 인간적 우애와 연대감을 이룩하는 동시에, 함께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도전할 수 있는 여성의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성과 사랑

우묵배미의 사랑

1990년 한국 모가드코리아 작품 장선우 감독 최명길, 박중훈 출연 대신영화사 배급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1989년 미국 사무엘 골드윈 컴퍼니 작품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제임스 스페이더, 앤디 맥도웰 출연 우일영상 배급

위험한 정사

1987년 미국 파라마운트 작품 아드리안 라인 감독 마이클 더글라스, 글렌 클로즈 출연 CIC 배급

아만테스

1990년 스페인 페드로코스타 작품 빈센트 아란다 감독 빅토리아 아브릴, 호르헤상즈 출연 우일영상 배급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1989년 미국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작품 로브 라이어 감독 빌리 크리스탈, 맥 라이언 출연 미디어트 배급

이웃집 여인

1980년 프랑스 작품 프랑소와 트뤼포 감독 제라르 드파르디유, 화니 아르당 출연 미디어트 배급

사랑과 일과 결혼

물위를 걷는 여자

1990년 한국 성립시네마 작품 박철수 감독 황신혜, 강문영, 이덕화 출연 정우시네마 배급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1989년 소련 모스필름 작품 블라디미르 멘쇼프 감독 베라 알렌토바, 라이자 라자노바 출연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영화상 수상 세경문화영상 배급

추억

1973년 미국 콜롬비아 작품 시드니 폴락 감독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로버트 레드포드 출연 우일영상 배급

사년

1981년 프랑스 작품 조지 카젠더 감독 마리프랑스 피지에, 티모시 달튼 출연 미디어트 배급

까미유 끌로델

1989년 프랑스 고몽 작품 브루노 누탱 감독 이자벨 아지니, 제라르 드파르디유 출연 미디어트 배급

가족제도와 여성

결혼 기념일

1991년 미국 터치스톤 작품 폴 마주르스키 감독 배트 미들러, 우디 앨런 출연 드림박스 배급

찾잔 속의 달

1989년 한국방송공사 작품 이희우 극본, 황은진 연출 사미자 출연 KBS영상사업단 배급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년 미국 콜롬비아 작품 로버트 벤튼 감독 더스틴 호프먼, 메릴 스트립, 저스틴 헨리 출연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주연남우상, 조연남우상, 조연여우상 수상 우일영상 배급

또 하나의 시작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 작품 박완서 원작, 나연숙 각색 김미숙, 김용우 출연 한국여성개발원 배급

여성의 삶

씨받이

1986년 한국 신한영화 작품 임권택 감독 강수연, 이구순 출연 서진통상 배급

은마는 오지 않는다

1991년 한국 한진흥업 작품 장길수 감독 이혜숙, 김보연, 방희 출연 스타맥스 배급

작은 악마

1989년 미국 콜롬비아 작품 수잔 세들만 감독 메릴 스트립, 로잔느 바 출연 우일영상 배급

칼라피올

1985년 미국 워너브러더스 작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우피 골드버그, 대니 글로버 출연 골든 글로브 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SKC배급

로말드와 줄리엣

1989년 프랑스 UGC작품 폴린 세로 감독 다니엘 오티에, 웨트민 리샤르 출연 미디어트 배급

여성과 직업, 사회활동

여배우 프랜시스

1982년 미국 엠베시 홈 엔터테인먼트 작품 그림 클리포드 감독 제시카 랜지, 킴 스탠리, 샘 세퍼드 출연 우일영상 배급

소파 승진

1990년 프랑스 자비엔젤링 작품 디디에 카망카 감독 그라스드 카파타니, 티에르 레르미트 출연 세경문화영상 배급

베이비 볼

1987년 미국 유니티드 아티스트 작품 찰즈 샤아 감독 다이안 키튼, 헤롤드 라미스 출연 SKC배급

여사원 일지

1988년 한국방송공사 작품 이은교 극본, 맹만재 연출 이한나, 박양례 출연 KBS영상사업단 배급

성폭력

피고인

1988년 미국 파라마운트 작품 조나단 케플란 감독 조디 포스터, 켈리 맥길리스 출연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CIC배급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990년 한국 예필름 작품 김유진 감독 원미경, 이영하 출연 스타맥스 배급

립스틱

1976년 미국 유니버설 작품 라몬토 존슨 감독 마고 헤밍웨이, 마리엘 헤밍웨이, 앤 밴크로프트 출연 서진통상 배급

적과의 동침

1991년 미국 20세기 폭스 작품 조셉 루벤 감독 줄리아 로버츠, 페트릭 버긴 출연 우일영상 배급

폭력남편

1989년 한국방송공사(KBS)작품 여성문제 연작드라마「절반의 실패」중 이경자 원작, 김현준 연출 KBS 영상사업단 배급

자본주의, 향락문화, 여성

서울 무지개

1989년 한국극동스크린 작품 김호선 감독 강리나, 김주승 출연 미디어트 배급

귀여운 여인

1990년 미국 워너브러더스 작품 게리 마셜 감독 리처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 출연 드림박스 배급

어미

1985년 흥기성사단 작품 박철수 감독 윤여정, 전혜성 출연 D&S배급

인터 걸

1989년 소련 모스필름 작품 표트르 토토프스키 감독 엘레나 야코블레바, 토마스 라우스 타올라 출연 라이프 프로덕션 배급

거리의 딸

1991년 미국 20세기 폭스 작품 에드 서린 감독 제인 알렉산더, 토잔나 잘 출연 우일영상 배급

여성의 사회인식

오피셜 스토리

1985년 아트헨티나 히스토리아 작품 루이스 푸엔즈 감독 놀마 알레안드로, 엑토르 알테리오, 아마리아 카스트로 출연 칸느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영화 작품상 등 수상 우일영상배급

노마 레이

1979년 미국 20세기 폭스 작품 마틴 리트 감독 셸리 필드, 론 라이브먼 출연 우일영상 배급

줄리아

1977년 미국 20세기 폭스 작품 프레드 진네만 감독 제인 폰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제이슨 토바즈 출연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각색상 수상 우일영상 배급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펴냄

사회구조와 인간의 심층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불평등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여성운동의 이론서.

여성사회철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펴냄

19세기 이래 발표된 해외학자들이 여성학 논문 16편을 선별, 체계화한 여성학 이론의 고전.

여성심리학 K.Horney 지음, 이근후·이동완 공역 이대출판부 펴냄

정신과 의사로서 직접 환자들을 다룬 정신의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수정한 여성심리학.

현대여성해방사상 H.Eisenstein 지음, 한정자 역 이대출판부 펴냄

최근의 여성해방이론 안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여성의 예측 J.S.Mill 지음, 김예숙 역 이대출판부 펴냄

남녀평등의 정당성과 유용성, 불평등 제도가 야기시키는 악덕과 평등제도가 생성시킬 미덕에 관해 현학적인 문체와 논증방식으로 분석.

성의 사회학 M.L. ANDERSEN 지음, 이동완·김미숙 공역 이대출판부 펴냄

여성들이 사회적 삶을 규명하고 성역할과 사회적 성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관찰 설명한 최근의 연구.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M.Mead 지음, 조혜정 역 이대출판부 펴냄

뉴기니아의 세 부족사회(아라페쉬, 먼더거머, 챔블리)의 생활상을 통해 남녀의 사회·적 인성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연구.

여성과 사회 이효재 지음 정우사 펴냄

변화하는 사회속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고 갈 길을 제시하는 사회학자 이효재교수의 평론집

반여성론 홍은중 지음 정우사 펴냄

오늘의 한국지성을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홍은중의 여성을 주제로 한 전작 예세이

위기의 여자 시몬느 드 보바르 지음, 오동자 역 정우사 펴냄

여성의 각성을 주제로 한 시몬느 드 보바르의 애정심리 소설

아름다운 영상 시몬느 드 보바르 지음, 오동자 역 정우사 펴냄

모든 것을 갖춘 한 여성의 인간회복을 위한 고민과 투쟁을 그린 『위기의 여자』의 속편

남녀의 행동연구 K.Deaux 지음, 이해성 역 이대출판부 펴냄

사회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남녀 행동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예리하게 분석·종합하여 남녀의 분화된 성역할의 장점과 단점, 특성을 규명.

성의 침묵 델마 헤인 지음 /이나미 옮김

『여성의 외도는 최악인가, 해방인가』 역눌러지고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성문제에 관한 진실을 여성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과감하게 밝히고 있다.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프란체스코 알베로니 지음/강성준 옮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연애론.

여자는 왜? 서진영 지음 도서출판 동녘 펴냄

자신의 어머니를 가슴이 저리는 느낌없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여성 중에도 지금 이순간 여성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딸들에게 어떤 길을 마련해놓고 있을까? 그들의 맑고 티없는 영혼이 받을 상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앞길에 놓인 가시들을 치우는 대신 아들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암탉이 울면 최순덕 지음 도서출판 동녘 펴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짓된 굴레에 여성들은 그 얼마나 고통받아왔습니까. 온몸으로 거부하며, 그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창조자인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내일의 신부에게 최순덕 지음 도서출판 동녘 펴냄

여자들이 삶에 자존심을 불어넣어준 책, 『암탉이 울면』의 저자 최순덕과 함께 하는 지혜로운 사랑과 결혼의 오리엔테이션!

껍데기를 벗고서 3 서진영 지음 도서출판 동녘 펴냄

여고생에서 여대생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연애하면, 어떻게 남학생들과 부대끼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무지의 껍데기, 여자다움의 껍데기, 만년 2등의 껍데기를 4년 동안 뚝뚝 벗고 당당한 여성으로!

여자 셋이 모이면 강남식의 16명 지음 도서출판 동네 펴냄

정말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요즘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 뜻대로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고 원한다면 직업도 갖고 돈도 벌 수 있게 되었다. 또 인생에서 남자 못지 않게 또는 결혼 못지 않게 자신의 직업과 성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운명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배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이 책에서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깨진다'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 '여자 셋이 모이면 소망을 품고, 차별을 거부하고, 통념을 바꾸며, 내일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진취적 태도를 새로이 모색해보고자 했다.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크리스 위던 지음/조주현역 이

화여대출판부 펴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제시. 모든 일반이론을 배격하고 구체적인 시대상황에서 여성해방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 했다.

올란도 버지니아 울프 지음 / 박세훈 옮김 도서출판 산호 펴냄

신화처럼 강렬한 마력으로 가득 찬 소설. 근대에 와서 페미니즘 문학의 텍스트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올란도'는 한 인간의 생애에 관한 완벽한 기록으로 격렬한 사랑과 혼란, 진정한 삶의 쓰고도 달콤한 양면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찾게 되는 자아를 버지니아 울프 특유의 날카로운 감수성과 예리한 지성으로 엮어낸 대표적 장편소설.

향해 버지니아 울프 지음 / 박영숙 박세훈 옮김 도서출판 산호 펴냄

현대의 심리소설의 형식인 '의식의 흐름' 기법 속에 인간의 가장 복잡미묘한 내면 생활을 파헤친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 첫 장편소설. 한 여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처절한 외로움과 남자에 대한 자유로운 환상과 그리움 속에 토해내는 사랑, 결혼, 인생 이야기.

자유로운 여자 시몬느 드 보바르 지음 / 이영선 옮김 도서출판 산호 펴냄

열정적인 사랑과 정열로 자기 앞의 생과 맞서는 한 여자의 완벽한 자기고백 속에 그려지는 사랑, 정열, 불굴의 의지, 행복의 추구 등. 자기형성의 자취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시몬느 보바르의 자전적 작품.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지음 동아일보사 펴냄

성에 관한 모근 것과 성폭력문제를 한국의 여성학 연구자 11명이 본격적으로 다룬 한국 최초의 책! 성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이율배반적 도구인 성. 그것은 진정 올바른 지식, 건전한 관계에서는 최고의 환희와 쾌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릇된 관계, 잘못된 통념의 범주에서는 괴로움이고 아픔이며 파멸일 뿐이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갖는 성에 대한 호기심. 이 책 한 권으로 시원스럽게 풀어보세요.